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전북교육청, 올해 24개 기관 선정... 학생 성장 속도 맞춰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2026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역 2곳, 민간위탁기관 18곳, 전곡단위 4곳 등 총 24개 기관을 선정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정규 교육과정과는 다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이는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 기존 교육 시스템과 맞지 않는 학생들이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 다.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정규 학교 교육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탁교육기관은 1년 2학기제를 원칙으로, 연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이다. 교육과정은 초등과 중등을 구분해

운영하며, 학급당 정원은 15명 이하다.

위탁기관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인성교육, 진로활동, 상담치유, 인문학, 문화예술중점 등 기관의 특색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된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대안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수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임대승 이리공업고 교장과 문형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이 '2025 인터배터리' 국내 기업체 관계자에게 학교의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 산·학·관 이차전지 인재 양성 ‘한 목소리’

이리공고, 2025 인터배터리 참여... 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재도전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임대승)는 지난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인터배터리'에 참여해 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 재도전 의지를 밝혔다.

이 행사는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박람회로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 on 등 글로벌 이차전지 업체를 비롯한 640개 업체가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 임대승 교장과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이 참석해 이리공업고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인재 양

성에 대한 의지를 과격하고, 기업체와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도내 기업 8곳도 함께 참여해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홍보하고, 이리공업고의 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힘을 보탤다.

임대승 교장은 "2025년 학과 전면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인재 육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형심 과장은 "이리공업고가 4차

산업에 발맞춰 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 전환과정에 있다"며 "후후 취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차전지 기업 관계자는 "이차전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이차전지 학과를 신설함에 감사드린다"며 "인재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리공업고등학교는 2023년 신산업 분야 글로벌 특성화고로 선정, 올해 전면 학과 개편을 진행해 '배터리융합과' 신입생을 모집했다.

/장은성 기자

‘1일 1영단어·1영문장으로 영어실력 한단계 UP’

전북교육청, 초·중·고 대상 영어 학습 프로그램 추진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영어 기초학력 향상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초등 '오늘의 영단어로 실력 UP!'은 1일 1영단어 알기 실천 프로그램으로 매일 실천하는 단어 학습을 통해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및 영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시행된다.

'오늘의 영단어로 실력 UP!'은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의 초등 권장 영단어 800개와 인공지능 기반(AI) 펙트 학습앱의 학년별 영단어 366개를 제공, 단위학교 영단어 학습 계획을 통해 각 학교별로 운영한다.

이는 초등 알파벳 파닉스 프로그램과 영어 읽기 자료를 활용하는 영어 독서활동과 연계했을 때 학습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오늘의 영문장으로 레벨 UP!'은 중등 영어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으로 영어학습 동기유발과 문장력 증진을 통한 영어 자신감 향상이 목적

이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WinC(윈크)'로 'We increase confidence in English(우리 모두 함께 영어 자신감 향상)'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틈새시간 또는 수업시간을 활용해 교훈이 담긴 명문장, 명언설, 교과서 핵심 문장, 관용구 등 하루 5분 영문장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학습 활동으로는 100 Challenge(100일 동안 100문장 암송 도전하기), 하루 한문장 학습 로그 작성하기, 명문장 필사하기, 명언설문 암송하기, 하루 한문장 암송 녹음하기, AI 코스웨어 활용 학습하기 등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변화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영어학력 신장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31일까지
상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118개교에 대해 상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취학 시간인 야간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 협조를 구하는 등 안전 대책 마련 후 진행된다.

아울러 스피너 대피로 적재물 여부 △옥상 출입문 개방 여부 △전열기구 주변 가연성 물질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장경란 학교안전과장은 "기숙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므로 반복적인 훈련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선정

전주대 탄소인력양성사업단, 14년 연속

전주대학교 탄소인력양성사업단이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에 14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mismatch를 해소하고,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도내 4개 대학이 13개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주대 탄소인력양성사업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탄소 전문인력 양

성에 앞장서왔다.

이명규 총괄교수는 "도내 탄소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탄소인력양성사업단에는 신소재화학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 학기 300만원의 장학금을 참여 학생에게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 선정

우석대, 3년 연속... 올해 도내 13개 고교서 프로그램 운영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지역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대학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활용해 인구감소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진로 진학 상담을 제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우석대는 그동안 지역 고등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교과심화학습과 동아리 활동, 방과 후 교육, 주말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는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익산·남원·정읍 등 9개 지역 13개 고등학교에서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프로그램에 접목해 지역 고교생들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6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우수연구자 시상식을 갖고 지난 한해동안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전주비전대, 우수연구자 3명 선정

기계과 신희재·최승훈 교수, 전기공학과 임진택 교수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6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우수연구자 시상식을 갖고 지난 한해동안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수연구자 선정·지원사업은 연구과제, 지식재산, 학술활동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연구 역량 강화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대학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에 따르면 연구과제 부문에는 기계과 신희재 교수, 지식재산 부문에는 기계과 최승훈 교수, 학술활동 부문에는 전기공학과 임진택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우병훈 총장은 "우수연구자 제도는 더 좋은 연구를 향한 전주비전대 연구자들의 노력과 헌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산학협력·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2017년부터 재직 교원들이 향후 발전된 산학협력·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연구자 선정·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지원 제도를 개발·운영함으로써 조교수부터 정년까지 연구 생애 전 주기적 우수연구자 육성에 힘쓰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기술수요조사 실시

지역 기업 지원 위해... 기술사업화 활성화 기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비즈니스센터가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기업과 연결하기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전북대에 따르면 기술비즈니스센터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유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기업에 맞춤형으로 소개한다.

기술비즈니스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기업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기술이전과 기업-대학 간 공동연구, 후속 모니터링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협력단 손정민 단장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연구자와 연결해 대규모 기술 마케팅과 함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선순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이은경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위촉



전북대학교 이은경 교수(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민간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전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 1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과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기능도 담당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3기 민간위원 합동 워크숍'에서 위촉장을 받았다.

이은경 교수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 연구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심의위원으로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한갑훈 교수, 국제진군 유전체 연구위원 선임



우석대학교 한갑훈(제약공학과) 교수가 국제아스퍼질러스 진군 유전체 연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 교수는 지난 1~5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21차 아스퍼질러스 진군 국제 심포지엄에서 참가 회원들의 투표로 정책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 연구자가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한 교수는 아스퍼질러스 유전체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과 정책 개발을 주도하며, 진군 연구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한갑훈 교수는 "이번 위원회 선임은 아스퍼질러스 진군 연구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국제적인 연구 협력과 정책 개발에 힘쓰며, 대학과 한국 연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9월 '반딧불 창작동요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은 오는 9월, 4년 만에 부활하는 '2025년 반딧불 창작동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년 반딧불 창작동요제의 첫 단계는 노랫말 공모전이다.

무주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접수 받으며, 태권도, 반딧불, 무주의 역사·문화·자연·설화 등의 주제 및 자유 주제의 노랫말을 모집한다.

선정된 50명의 학생들은 5월 31일 개최되는 '반딧불 노랫말 콤포터(노랫말 창작 교실)'에 초대되어 전문 작사가의 지도 아래 가사를 다듬고 완성할 기회를 갖는다.

완성된 노랫말을 바탕으로 전국의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한 작곡 공모전이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곡의 본선 진출곡이 선정되며, 최종 무대는 9월 13일(예정) 무주반딧불축제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무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작사 부문 참가 신청은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작곡 공모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